

국어 상담사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1. 국어 상담사란?

국어 상담사라는 자격 제도는 최근 정부가 ‘국어 기본법’(이하 ‘법’이라고 부름)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어 상담소 제도를 언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국어 상담사란 평범하게 말한다면 국어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다. 만일 국어 상담소가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법이 규정한다면 국어 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국어 상담사의 위상과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법이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국어 상담사 제도에 관해서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어 상담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담 제도와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외국의 언어 관련 상담

2.1. 구미 각 대학교의 문장 상담소(writing center)

구미 각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문장 상담 업무는 주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들의 논문, 과제물 등을 제대로 적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장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하버드와 엠아이티 대학교 문장 상담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운영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¹⁾

1) 하는 일

학생들이 과제나 논문을 더 잘 쓰도록 방향을 잡아 주고 논문 작성 기법을 가르쳐 주며 논문 작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문장 상담소의 임무이다. 글을 쓰게 하는 학생이 생각이나 메모, 초안 또는 원고를 가져오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글의 구조, 논증 방법, 간명성 확보 방법, 문체, 문법 등에 관한 자세한 도움을 준다. 학생들이 원고나 초안을 가져오면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지만 그들의 글을 완성해 주거나 처음부터 써 주지는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법과 전략을 가르쳐 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줄뿐이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글을 교정하거나 교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기술,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능력을 길러 주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2) 상담자

학생들에 맞는 상담자를 배치해서 상담에 응하게 한다. 영어를 모국어

1) 이 정보는 하버드 문장 상담소 웹사이트(www.fas.harvard.edu/~wricntr/)와 엠아이티 문장 상담소 웹사이트([//web.mit.edu/writing/](http://web.mit.edu/writing/))에서 취한 것임.

로 삼는 학생과 외국어로 삼는 학생에게 다른 상담자를 배치하는 것도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상근하는 책임 상담자와 비상근의 상담자가 있다. 비상근 상담자는 문장 능력이 검증된,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 주로 맡는다. 때로는 동료 학생 가운데에서 상담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상담자는 전공이 다양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학, 과학, 철학, 역사학, 심리학, 소설, 시 등 다양한 부문의 상담자가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3) 상담 요령

학생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직접 방문하여 상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담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담 시간도 온라인의 경우나 대면의 경우나 30분 또는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한번 상담 신청을 했다가 아무 통보 없이 상담하지 않게 되면 벌칙이 주어진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다.

4) 상담소 설치 취지

대학에 설치된 문장 상담소는 학생들(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함)이 우수한 논문을 쓸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새롭거나 진보적인 소재로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뒤엎히거나 주장이 불분명해지거나 문법적으로 혼란스러운 글을 쓰게 되기 쉬운데 문장 상담은 이런 점을 막아 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분야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법, 즉 논증 방법이 다르다. 정치학에서 좋은 분석 방법이라고 해도 심리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도 제2, 제3의 분야의 글도 잘 쓰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문장 상담소가 이들에게 좋은 도움을 준다.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로 글을 쓰는 학생들은 원어인 상담자의 도움을 받

아 좀더 정확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2.2.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문장 상담소 제도가 대학생들의 문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면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문장을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운동은 원래 정부 공문서가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 점을 고치기 위한 시민 운동으로 전개되다가 영국 정부가 이를 공식 지원함으로써 힘을 얻어 정부 기관과 은행, 기업 등이 일반인에게 쓰는 문장을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바꿔 주는 사업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쉬운 영어 쓰기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²⁾

1) 취지

이 단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이는 어렵고 복잡한 영어를 버리고 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문장을 평이하게 쓰는 것을 덕목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수동태 문장과 명사형 문장(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사용하는 문장), 문어체 문장 등을 거부한다.

이들의 목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부드러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며,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고쳐 준 아래 문장을 보면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언어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2) 이 정보는 ‘쉬운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plainenglish.co.uk)에서 취한 것임.

(고치기 전)

If there are any points on which you require explanation or further particulars we shall be glad to furnish such additional details as may be required by telephone.

(당신에게 설명이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전화로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고친 문장)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ing.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특히 이들은 어려운 어휘를 대체할 쉬운 어휘를 찾아서 사전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한 사전에서 몇 개의 어휘를 어떻게 대체했는지 보면 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 써야 할 어휘/표현)	(갈음할 어휘/표현)
abundance	enough, plenty, a lot (or say how many)
accede to	allow, agree to
accelerate	speed up
accentuate	stress
accommodation	where you live, home
accompanying	with
accomplish	do, finish
according to our records	our records show
accordingly	in line with this, so
acknowledge	thank you for
acquiesce	agree
acquire	buy, get

이는 우리의 국어 순화 사업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국어 순화 사업이 시민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오래 추진되었지만 큰 반향과 성과를 올리지 못한 데 반해서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은 영

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모든 나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러움을 살 만하다.

2) 교육 프로그램

쉬운 영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기간이 하루 짜리에서 52주 짜리까지 있으며, 가르치는 내용도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어휘, 문법, 문체, 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상도 일반 국민에서부터 공무원, 학생,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최근에는 상업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3) 상담자 및 교육자

초기에는 비전문가들이 이 운동을 주도했으나 교수들이 대거 이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지금은 쉬운 영어 쓰기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이들이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다. 쉬운 영어 쓰기 전문가란 이곳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문장을 고쳐 주는 실무를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된 사람들이다. 물론 대학에서 언어, 문학, 철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지식인 또는 글쓴이 위주에서 일반인 또는 읽는 이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꾸준히 양성하여 쉬운 영어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2.3. 기타 국가의 언어 상담

대만의 몇 대학³⁾과 일본의 몇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영어로 논문을 쓰는 법을 지도하고, 영어 번역 작업을 돕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자국어로 논문 쓰는 법을 상담해 주는 제도를 둔 곳은 없다. 일본은 민간(일본어문능

3) www.cc.nctu.edu.tw/~tedknoy/

력검정협회)에서 자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일본어 문장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⁴⁾ 자국민의 국어 상담, 특히 문장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다. 언어 교육은 공교육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의 상황

한국도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 다만, 일반 국민을 위한 언어 상담이 일본에 비해서 조금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상담이 국립국어연구원과 몇몇 방송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어문화운동본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문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3.1. 국립국어연구원과 학예사

국립국어연구원은 국민의 국어 상담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응하고 있다. 주로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관련된 상담이 많은 편이다.⁵⁾ 최근에는 정부 기관의 공문이나 법률 문장 상담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학예사로서 국어를 전공하고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국어 상담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3.2. 문화방송의 아나운서

문화방송은 자체적으로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시청자의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전화로 질문을 받아 대답해

4) www.kentei.co.jp/bunken/

5) www.korean.go.kr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3.3. 국어문화운동본부와 문장사

국어문화운동본부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의 언어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문장 상담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어문화운동본부의 문장 다듬기 사업은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어 순화, 어문 규정과 어법 지키기, 쉽고 간결하면서 주제가 명료한 문장 쓰기 등을 추구하고 있다.⁶⁾

국어문화운동본부는 문장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장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어문 규정, 문법, 문장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문장을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연습과 문장을 분석하는 법을 익힌 뒤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방송 언어 검토를 비롯하여 공공 게시문 오류 분석, 창작문 오류 분석 작업을 주로 하며 기사문, 홍보문 작성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 글에서 뒤에 논하게 될 문장 상담사와 국어문화운동본부의 문장사는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국어 상담의 종류

구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어 상담은 크게 두 줄기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에 연결되는 문장 상담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의 언어 생활과 직결되는 문장 상담이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국어 상담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두 부분에 모두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6) www.barunmal.com

주는 대학 내의 기관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논문 대필 사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안에 구미의 문장 상담소 같은 기구를 상설하여 대학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일반인의 국어 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사회 단체나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거론한 국립국어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반인의 국어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국가 기관이 문서로 행정 행위를 할 때에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바로잡아 주는 장치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의 국어 문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국어 현실은 구미와 달리 어문 규정에서부터 문법과 문장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칙과 어법을 무시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문장이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구미의 수준 높은 문장 상담뿐만 아니라 모르고 잘못 쓰는 국어를 바로잡아 주고, 어렵고 까다롭고 권위적이고 딱딱한 문장을 쉽고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바꿔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어 상담은 구미의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술적 문장 상담’과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과 같은 ‘대중적 문장 상담’, 그리고 어문 규정이나 문법 등에 맞게 문장을 바로잡아 주는 ‘어문 규범 상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이나 토론, 연설 등에서 나타나는 입말의 잘잘못을 가리고 바로잡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표준 화법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화법 상담’도 문장 상담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국어 상담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게 된다면 국어 상담사도 대단히 포괄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화법을 아는 것과 문장을 아는 것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없고, 대중적인 문장을 상담하는 것과 학술

적인 문장을 상담하는 것도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므로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국어 상담은 말을 제대로 하게 해 주는 화법 상담과 글을 제대로 쓰게 해 주는 문장 상담, 말과 글에서 모두 지켜야 할 규범을 상담해 주는 규범 상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4.1. 규범 상담

구미 언어의 철자법에 비해서 한국어의 철자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원칙이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예외가 많고 예외의 예외도 많다. ‘일찍이’와 ‘일찌기’, ‘얼루기’와 ‘얼룩이’를 변별해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알아야 하며, ‘간 지 10년’처럼 써야 하는지 ‘간지 10년’처럼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표준어와 비표준어 구별도 쉽지 않다. ‘관때기’와 ‘상판대기’, ‘과녁빼기’와 ‘언덕빼기’가 표준어이고, ‘상판때기’, ‘언덕빼기’가 왜 비표준어인지 알기 어렵다. 더욱이 외래어 표기에서는 ‘디지털’과 ‘디지틀’, ‘게놈’과 ‘지놈’, ‘비타민’과 ‘바이타민’ 등이 다투는 형국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반인이 어문 규정에 익숙해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어문 규범에 맞는 글을 써야 하므로 규범에 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해서 규범 상담이 필요해진다. 다만, 어문 규범은 대체로 다른 상담(문장 상담, 화법 상담)에서 자연스럽게 곁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규범 상담사’ 같은 자격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2. 문장 상담

우리나라에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가 문장 상담 제도이다. 행정 기관이 만든 각종 문장(법률과 규칙의 조문, 내부 문서와 국민에게 보내는 문서의 문장 등)이 어문 규정과 문법 그리고 문장론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되

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학의 논문이나 학술 서적의 문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국어 문장을 바로 구성하는 일을 도와 주는 상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은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립니다’ 같은 묘한 언어가 난무하고 있고, 공공 기관은 ‘이 지역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 금지 구역으로 주차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차 금지 안내문을 예사로 내건다. 여기에 문인들까지 가세해서 ‘큰애는 아들 둘에 딸을 하나 났는데 장남과 딸은 출가해 서울에 살고 막내아들만 거느렸다 보니 식구가 단출했다.’나 ‘주례사 비평의 주류화의 원인은 문학 출판의 상업주의화에서 가장 널리 구해진다.’ 같은 엉터리 문장을 마구 쏟아내고 있고,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어 문장을 바로잡아 줄 전문가 집단의 출현은 시급하고 또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장 상담은 문장을 바르고, 쉽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상담이다.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이 지향하는 문장 다듬기 수준에 덧붙여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주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문장 구성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런 상담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문장 전문가 양성은 매우 시급하다.

문장 상담은 대학의 학술 문장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술 문장도 국어 문장이므로 국어 문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잘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문장 상담을 해 줄 사람은 최소한 문장 상담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특별히 학술 문장을 상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그 자격은 대학별로 또는 분야별로 정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체나 공공 기관에서 문장 상담을 할 사람도 문장 상담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한국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일은 국어 문장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각 부문에 배치하는 일이다.

4.3. 화법 상담

국어 상담 가운데에 말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도 필요하다. 방송국에 나가서 대화하거나, 연설이나 토론회에서 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틀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어 말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 인사를 나누는 방법,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 등 각종 필요에 맞게 말을 하는 요령을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화법 가운데에서 높임법과 호칭 및 지칭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말의 수평적 정보 교환 능력이 구미의 언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표준 화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화법 상담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다.

5. 문장 상담사의 능력

나는 위에서 국어 상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문장 상담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이제부터 국어 상담을 문장 상담으로, 국어 상담사를 문장 상담사로 부르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장 상담 전문가가 될 문장 상담사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5.1. 문장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1) 어문 규정 이해 능력

문장 상담사는 복잡한 어문 규정을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며 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잘못 쓴 글자, 비표준어, 틀린 외래어 표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띄어쓰기와 사이시옷 붙이기 등은 국어 철자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에 관한 정확하고 세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래의 문장을 화살표처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머리를 싹뚝 잘라 버렸다. → 머리를 싹뚝 잘라 버렸다.
- 만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해드리는 방법 → 만 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방법

2) 문법 이해 능력

단위 문장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각 성분의 위치와 기능, 상호 호응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와 어미가 문장 성분과 어울리게 쓰였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서법, 부정법, 시제, 높임법, 부정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인 겹문장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래의 문장을 화살표처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아들이 보내오는 그 돈으로 주로 집에서 어디에 쓰여지는지요? → 아들이 보내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요?(아들이 보내 주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지요?)
- 그러면 제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3) 문장 구성 및 분석 능력

문법적으로 완전하고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며 명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 대상 문장의 문법적 오류, 구성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주제화 정도, 문단과 문

단의 구성과 연결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올바르게 간결하며 정확한 문장으로 다시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휘나 표현을 바꿔 주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과 표현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아래 문장을 화살표 문장처럼 바꿔 줄 수 있을 것이다.

- 최근의 변화된 국내외 환경은 우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국내외 환경은 우리에게 더 엄격한 기업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습기가 많아서 기계가 부식되는 속에 넣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여성 생리대나 아기의 기저귀 등에 활용된다. → 녹슬(부식) 방지 포장지, 여성 생리대, 아기의 기저귀 등의 소재로도 활용된다.(흡습성 수지의 응용 분야를 설명한 것임)

5.2. 문장 상담사 제도의 범용성

이제까지의 문장 상담 논의는 주로 국어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준 높은 문장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적인 상담을 뛰어넘어 그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살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가 사회의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연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장 상담이 사회 각 부문에서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어 나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 상담이 단순히 국어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각 전문 분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문장을 상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무역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무역 관련 문장을 상담하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을 아는 문장 상담사, 경제를 아는 문장 상담사, 행정을 아는 문장 상담사, 역사학이나 심리학을 아는 문장 상담사, 컴퓨터를 아는 문장 상담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문장 상담사가 만능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편견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각 부문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문장 상담사를 양성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직장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히 문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대외에 배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문장 상담사로 양성하면 된다. 앞에서 제시한 문장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능력은 모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문장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 분야에 맞는 문장 상담사를 확보할 수 있다.

6. 문장 상담사의 활용 방안

국어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 수준과 정보 교환 능력을 높이는 데 문장 상담사가 사회 각 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6.1. 국가 기관의 문장 상담

입법, 사법, 행정 각 기관의 필요한 부서에 문장 상담사가 배치되어 국가 기관의 문장을 바르고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 준다면 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내보이는 문장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어 국민은 언어 문화적으로 불만을 느끼지 않고 국가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언어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덕목이다. 국가 기관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와 가깝게 해 주는 데 문장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6.2. 언론 기관의 문장 상담

언론 기관에 문장 상담사가 배치되어 기사 문장을 상담해 줄 수 있다면

신문 기사문이 지금처럼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표현과 선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장사들이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품위 있는 어휘로 간결하고 명쾌한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 접하게 되는 신문 문장이 산뜻하고 정확하고 명쾌해지면 국민들의 마음도 깨끗이 정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장 상담사들은 신문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시키는 산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3. 기업의 문장 상담

기업체에 문장 상담사를 배치하면 기업이 생산해 내는 각종 문장이 바로잡힐 수 있어서 이를 대하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게 된다. 각종 제품 설명서나 사용 설명서, 매일 쏟아내는 홍보물 등에 적힌 국어 문장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이를 읽는 국민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는가? 문장 상담사들은 문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는 노릇을 할 것이다.

6.4. 학교의 문장 상담

학생들의 과제물이나 논문 작성에 문장 상담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자라는 세대의 문장 능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국어 능력은 곧 미래 사회의 국어 문화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르고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공 분야별로 우수한 문장 상담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을 처음부터 잘 지도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비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는 좀더 수준 높은 문장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별도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문장 상담사를 양성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6.5. 교과서, 출판물의 문장 상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각종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교과서의 국어 문장에 문제가 많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교과서 제작 과정에 문장 상담사가 참여하여 문장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면 교과서의 문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르고 간결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종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도 현재 자체 확보하고 있는 교열 인력을 모두 문장 상담사로 양성한다면 각종 출판물의 국어 오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6.6.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문장 상담

위와 같은 특별한 기관이나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문장 상담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장 상담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각종 회사나 사업체의 문장 상담 수요에 응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글쓰기 지도에서 어른들의 글쓰기 지도까지 일반 국민들의 문장 작성을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7. 국어 지킴이 활동

문장 상담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우리 사회의 국어 훼손을 막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이다. 문장 상담사들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잘못된 국어 사용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어문화운동본부의 문장사들이 하는 일처럼 방송 언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 게시문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국가 기관이나 기업체가 국민들에게 내놓는 각종 문장의 잘못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내는 문장의 잘못을 찾아 시정하게 만드는 작업은 문장 상담사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다.

7. 문장 상담사 제도의 실행

문장 상담사는 국어에 관한 한 허파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잘 시행되면 국어는 금방 생기를 찾아 발전할 것이고,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어는 여전히 생기를 잃고 시들시들해질 것이다.

7.1. 문장 상담사 의무 고용제

문장 상담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먼저 문장 상담사가 필요한 곳을 명시해서 그곳에는 의무적으로 문장 상담사를 배치하게 해야 한다.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곳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고, 간호가 필요한 곳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문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장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의 손을 거쳐 문장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 상담사가 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문장 상담사는 어디까지나 바르고 좋은 문장이 되도록 도와 주는 사람이자 자신이 직접 문장을 작성하는 자는 아니다. 최소한 국가 기관의 홍보 내지 대외 업무 부서에는 문장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홍보실, 일정 규모 이상의 출판사, 일정 규모 이상의 신문사와 방송국, 각급 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포털 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홍보 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회사 등에도 문장 상담사를 배치해서 국민의 눈과 귀에 잘못된 문장, 어수선한 문장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7.2. 문장사 실명제

일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문장 상담사에게는 문장사 실명제를 채택하여 자신이 상담한 문장의 사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문장사의 능력을 높이고 성실한 문장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7.3. 문장 상담소 설치

특정 기관이나 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문장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은 문장 상담소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장 상담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그 문장에 잘못이 들어 있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장 상담소 사이에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의 우수한 상담소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4. 인증 표시제

문장 상담사가 상담하여 작성한 문장에는 인증 표시를 붙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증 표시가 붙은 신문, 인증 표시가 붙은 설명서, 인증 표시가 붙은 게시물 등을 통해서 문장 상담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도 있고, 문장 상담사의 능력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이 채택한 방법으로서 쉬운 영어 운동의 검토를 받은 업체의 문서에는 ‘크리스털 마크’를 부착하고, 그들의 감수를 받아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단체에게는 ‘크리스털 마크’를 부착해 주는 방법으로 영어를 쉽고 간결하게 쓰는 대민 봉사 활동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과 의회, 법원과 경찰을 비롯한 각종 공공 기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위원회, 은행, 기업, 병원, 시민 단체 등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크리스털 마크’를 붙이게 되었다.

8. 국어 기본법과 문장 상담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어 기본법(안)에는 불행히도 문장 상담사 제도 규정이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이 결과가 국어 기본법이 무엇

을 지향하고 무엇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국어 기본법이 국어 유해 환경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국어 관련 법령을 단순히 일원화하거나 국어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새삼스럽게 이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 기본법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오염된 국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국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문장 상담사 제도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없다. 정부가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수십 년 동안 외쳤어도 국어는 훼손 일로를 걸어 왔다. 국민에게 국어 능력 시험을 보이는 것으로 국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국어 능력이 있으면 국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어 능력과 실제 국어 사용은 비례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틀리게 쓰거나 일부러 틀리게 쓰는 지식인과 문인들이 판을 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국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어 기본법(안)에 규정된 국어 책임관도 문장 상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학과 기업체에 설치될 문장 상담소의 운영자도 문장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한다. 국어를 바로잡을 가장 기본 세포 조직을 마련하지 않고 막연히 국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문장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국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문장 상담사라는 국어 게릴라를 양성하여 우리 사회 각 부문에 보내어 과감하게 잘못된 국어 문장과 싸움을 벌이게 해야 한다. 그들의 이상과 삶의 목표를 잘못된 국어 문장과 싸움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어 상담사는 온갖 잡탕과 비속어로 더러워진 국어에 신선한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 허파 같은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어 기본법에 문장 상담사 제도를 명시하고, 문장 상담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리 국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뒷받침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는 문장 상담사 제도가 국어 기본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다.